

조선시대 양반가의 남녀 간 가내노동 분담:

보완적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The Complementary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Yangban Class of the Choson Period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영**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부

부 교수 김 성 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박 사 이 현 아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Lee, Ki-Young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Sunghe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ate : Lee, Hyunah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 및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lementary gender division of housework in the Yangban ruling class of the Choson period. During the Choson period, genders were distinctly divided. It was generally regarded that women had to stay indoors and take care of household matters, while men, on the other hand, did

* 서울대학교 한국학장기기초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 이기영 (leek@snu.ac.kr)

*** 교신저자 : 김성희 (ksh@suncheon.ac.kr)

not need to be concerned with housework because of the Confucian practice of “Naeoe”. But homes in traditional society were considered as being at the center of production, so the study explores if women and men complemented each other through reviewed literature.

As the results indicate, women and men in the Choson period complemented each other in some housework, even in the Yangban ruling class who maintained their authority by following the Confucian practice.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omplementary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hoson period should be emphasized as the origin of shared housework.

Key Words : 조선시대(Choson), 양반(yangban class),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성역할 (gender role), 가내노동(household work), 가사노동(housework)

I. 서론

현재 가족정책의 초점은 성역할 관계에서 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기 위해 가정 내의 가사노동 및 육아의 공유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통적 성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시대는 남녀 간에 성차별적 성별분업이 지배하던 사회로 간주된다. 내외법의 규범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가내와 가외에서 서로 다른 일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된 생산의 중심지였던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농사 등의 생산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었고, 남성은 관여치 않았다는 성차별적 가설이 전통적 성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한 예로 박미석과 송인자, 한정원(2004)은 여성의 복지정책을 논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전담자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분화해서 보는 전통에 따라 오늘날의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양립해야 하는 가사노동의 문제도 여성과

남성이 공유하는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시대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 윤리인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는 부부유별이라 하여 남자는 남편으로서 여자는 아내로서의 본분과 역할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남녀 간에 차별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영역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보완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완적 역할에 대한 노력을 간과하고 전통적으로 남성은 가사노동에 관여치 않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남성을 억압과 지배의 특성을 지닌 존재로만 폄하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불참에 대한 통념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최근의 풍속화 분석 연구(김성희, 이기영, 2007)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남성은 의생활과 식생활, 주생활 및 아동양육과 같은 가사노동 영역에 여성과 더불어 관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시대 남성은 가내에서 농사와 같은 생산적 역할뿐 아니라 가사노동 수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선시대는 신분사회로 계층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양반 계층은 사회의 지도적 집단으로 다른 어떤 계층보다 내외법의 유교적 관습을 따르고 성차별적 분업을 유지시킴으로써 권위를 유지하려던 집단이었다. 성차별적 분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이들 양반 계층에서 보완적 역할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계층으로의 일반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반 계층은 유일하게 문자 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어 계층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반계층에 초점을 두어 가사노동에 남성은 성차별적으로 관여치 않았는지, 관여하였다면 어떤 일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 그 경험적 증거를 문헌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여성과 남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차별적 성별 분업의 이분적 논리에 따라 전개되어옴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공존해온 역사를 간과해 왔다. 가내와 가외의 역할 분화 속에서 여성은 가내에서 억압받는 존재로, 남성은 여성을 차별하는 존재로만 부각되었고, 여성과 남성이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위해 기울여온 공동의 노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살아온 가정생활의 역사를 새로이 규명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가사노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관련연구 및 연구방법

1. 관련연구 고찰

조선시대 생활상에 관한 연구는 크게 양반

의 일기를 분석한 연구, 교훈류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각종 문헌을 통한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일기를 분석한 연구로는 『병자일기(丙子日記)』를 통하여 여성의 처지에서 본 가정생활의 모습을 밝힌 이순구(1998)의 연구, 『정훈(庭訓)』을 통하여 조선시대 사족가의 생활양식을 분석한 우인수(2000)의 연구,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통하여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서의 가장권을 연구한 박미해(2002, 2003)의 연구, 농지 경영, 노비 사환, 물품 구매의 관행등을 규명한 이성임(1995, 1998, 1999)의 연구, 『쇄미록(瑣尾錄)』을 중심으로 사대부의 일상생활을 연구한 전경목(1996)의 연구, 16세기 가장의 역할을 연구한 김성희(2000)의 연구 등이 있다.

한편 교훈류를 연구한 것으로는 내훈, 여사서, 산림경제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 내 인간관계, 계획, 가사작업, 소비생활, 평가 및 통솔에 대한 의식을 고찰한 장명옥(1976)의 연구가 있고, 서병숙(1984)은 계녀교훈록에 나타난 여성의 규범 및 계율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지영숙(1988)은 정약용의 가정교육관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조희선(1988, 1998)은 전통가족에서 여성의 생활과 조선조 김약생활의 규범과 실제에 대해, 이순형(1989, 1990, 2000)은 18년 동안 명문종가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자녀교육과 사회화과정에 대해 연구해왔다.

기타 각종 문헌을 이용해서는 여성의 가내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김성희는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 특성과 경제적 가치(1992), 산업화이전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1998),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사노동의 변화(1999), 김성희와 이기영(1997)은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을 풍속화를 통해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생활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의 공통점은 여성이나 남성 어느 일방에 초점을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생활영역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생활 주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공유하던 영역이었으므로,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가정경영의 주체로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김성희와 이기영(1997)이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층 간 차이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반 남성과 여성을 가내노동의 주체로 보고 남녀 간 가내노동의 분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범위

1) 연구자료

조선시대 양반에 의해 기록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헌에는 일기류, 가훈류 및 규범류가 있고 가정생활 지침서가 있다. 일기류에는 미암일기(眉巖日記), 쇄미록(瑣尾錄), 양아록(養兒錄) 등이 있다. 이들 일기류는 양반들의 가정에서의 일상적 경험이 서술되어 있어서 가정 내 노동 분담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주관적인 기술에 의한 편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생활에 관한 묘사는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고, 당시 가내에서의 생활은 개인의 선호나 관심보다 사회보편적인 관습과 통념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므로 일기를 이용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미암일기」(眉巖日記)는 조선중기 관료인 유희춘(1513 - 1577)이 1567년부터 1577년 까지 대략 11년에 걸쳐 작성한 일기로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개인 일기 중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기에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이사, 집수리, 건축, 혼례풍습, 집안잔치 등 집안의 대사소, 부인 송덕봉과 자식들의 생활 모습, 노비, 첩, 서녀 등의 생활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쇄미록」(瑣尾錄)은 조선시대 양반이었던 오희문(1539-1613)이 1591년 임진왜란 당시로부터 9년 3개월 동안 겪은 일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시(戰時)에 기록된 일기이기는 하지만 일상의 관행이 잘 기록되어 있어 가내노동의 분담 상황을 잘 엿볼 수 있다.

한편 「양아록」(養兒錄)은 목재 이문건(1494 - 1567)이 손자를 양육하는 과정을 시 형식으로 쓴 기록문이다. 손자인 이수봉의 출생과 성장과정, 손자에 대한 정성과 기대감, 손자를 교육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치병의 민간 풍습을 기술하고 있다. 사대부 가문에서 실시했던 교육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가훈류나 규범류 등에도 양반 사대부가의 생활규범과 생활양식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내훈(內訓), 계녀서(戒女書)에는 양반 가정 내 남녀 간 가내노동 분담이 어떠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는지가 잘 나타난다.

「내훈」(內訓)은 조선조 7대 임금인 세조의 며느리이자 제9대 임금인 성종의 어머니로 인수대비 칭호를 받은 소혜왕후 한씨가 지은 책이다. 1권은 말과 행실에 관한 언행장(言行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효친장(孝親章), 혼례장(婚禮章), 2권에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부부장(夫婦章), 3권은 어머니의 행실에 관한 모의장(母儀章), 친척과 화목에 관한 돈목장(敦睦章), 청렴과 검소에 관한 염검장(廉儉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녀서」(戒女書)는 조선조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인 우암 송시열이 시집가는 딸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로, 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친척 간에 화목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조상을 잘 받들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질투하지 말고 말을 삼가고, 재물을 절약하고,

부지런하고 병을 치료하고, 의복과 음식을 잘 마련하고, 하인들을 잘 부리고, 물건을 주고 받고 팔고 사고, 미신을 믿지 말고, 모든 일을 잘 경계하고, 옛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본받으라는 내용이 혼계되어 있다.

가정생활 지침서로는 가정백과전서를 불리는 『규합총서』(閩閩叢書)가 있다. 1809년 빙허각 이씨가 부녀자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다. 규합총서에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당시의 생활규모와 정도, 수준 및 다양성 등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책은 장 담그기·술 빚기 등 음식 만드는 법이 수록되어 있는 주사의(酒食議), 옷만들기·길쌈·그릇 때우기, 불 켜는 모든 잡방(雜方) 등이 기술된 봉임척(縫妊測), 발 갈기·가축 기르기 등이 기술된 산가락(山家樂), 태교·아이 기르기·구급처방 등이 기술된 청낭결(靑囊訣), 집 정하는 법에 관한 술수략(術數略) 등 5권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양반가의 생활상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더 많은 자료들이 후속연구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범위

위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가내에서 행해졌던 일들에는 음식 만들기, 바느질하기, 염색, 집수리,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이 있고, 직조, 양잠, 농사일, 구매하고 교환하는 일, 봉제사와 손님접대하기, 노비관리가 있다.

이러한 가내노동을 현대사회의 가사노동과 비교해보면 가족을 위해 가내에서 수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행목적이나 일의 종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의 가내노동은 가족원의 욕구 충족이나 노동력재생산뿐 아니라 납세나 공납을 위해서 또는 가계운영 및 재산축적을 위해서도 수행되었으나 오

늘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주로 사적(私的)으로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농사짓기와 직조, 양잠, 봉제사와 손님접대, 노비관리는 가사노동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의 종류나 수행목적에 있어서 가사노동과 가내노동은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 분담 및 공유를 연구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므로 활동 목적에 관계없이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의식·주생활과 관련된 일, 구매 및 교환과 관련된 경제활동, 농사짓기와 농지관리, 자녀양육과 교육, 노비관리, 봉제사, 접빈객을 양반가의 주된 가내노동으로 간주하여 그 실태를 고찰한다.

III. 남녀 간 가내노동 분담

1.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일

식생활과 관련된 일 중에서 음식만들기는 여성이 담당하였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도 “음식을 마련하는 일은 오직 부인이 맡아하는 일이다”고 했다(이덕무, 1987). 밥을 짓기 위해서는 곡식을 찧고 물을 길어오고 식료를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했다(김성희, 2002).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노동은 양반가에서는 노비가 있는 한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1539-1613)의 ‘쇄미록’에 “들으니 희철의 계집종 개금이 도망갔다고 하는 데… 다만 한 계집종이 있을 뿐인데 지금 또 도망갔으니 조석(朝夕) 식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걱정이 쳐지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 사가(士家)에서 노비 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다는 것은 집안의 부인은 노비가 있는 한 직접 물을 길고 방아를 찧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비가 있는 양반가에서는 노비가 식사준비를 하였지만 주부가 식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비가 있다 하더라도 음식만들기의 관리적인 책임은 부인들에게 있었다.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보면 매 끼니 음식은 여종들이 준비했고, 안주인은 여종들이 준비한 반찬을 하나씩 집어 올린 뒤 마지막으로 밥과 국을 퍼서 상에 올렸다(정창권, 2003)는 기록이 있다. 또한 미암일기에는 안주인 덕봉이 부엌에 가서 찬모(饌母)와 여종이 찬거리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부엌살림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식사준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양반 여성들은 식사준비를 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가정생활교육서로 전수하기도 하였다. 송촌 소대현(1682-1764)의 부인인 호연재(1681-1722) 김씨의 음식솜씨는 '주식시의'(酒食是儀)와 '우음제방'(禹飲諸方)이라는 책으로 기록되어 며느리에게 대물림되고 있다(허경진, 2003). 빙허각 이씨가 지은 규합총서에도 약주 만드는 법, 장담그는 법, 차만들기, 초만들기, 반찬만들기, 떡과 과줄 만들기, 기름짜는 법 등이 소대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여성들은 음식 만드는 일을 관리 감독하면서 음식 준비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반가의 남성들은 식사준비에 관여하는 일은 없었지만 식료를 공급하고 조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들은 자기 가족 뿐 아니라 일가친척과 수많은 집안 노비를 부양하기 위한 식료 외에 봉제사와 접빈객을 위한 식료를 축적해야 했다. 따라서 식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양반 관료인 경우에는 관아에서 식물(食物)을 부탁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하였다(정창권, 2003).

미암일기에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

는데, 유희춘의 부인인 덕봉이 곳간에 콩이 조만간 떨어질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자, “노비 몽근과 한풍을 청주에 보냈는데, 콩을 구하기 위해서다. 지방관아에서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때때로 유희춘이 직접 지방의 부사들에게 식물(食物)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대식구를 거느리고 내려오다 보니 이곳의 살림편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며칠 있으면 집안의 제사까지 돌아와서 더욱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각 고을에 연락해서 식물을 좀 보내주세요.” 이처럼 조선시대 남편들은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는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식사준비와 더불어 조선시대 부인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일은 가족들의 의복 마련이었다. 특히 사가(士家)의 부녀는 외출이 금지된 대신 가내에서 바느질을 즐겨하였다. 바늘과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는 규 중 여인의 일곱 벗이었던 것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허동화, 1997). 사가의 부녀가 바느질로 밤을 지내는 모습은 허난설헌(1563-1589)과 김삼의당(金三宜堂: 1769-?)의 다음 시구(詩句)에 잘 나타난다. “비단 폭을 가위로 결결이 잘라, 겨울옷 짓노라면 손끝 시리다, 옥비녀 비껴들고 등잔가를 저음은…/낭군 옷 마르려고 가위잡고는, 병풍 사이 남은 촛불 자주 돋우네…(허난설헌 외, 1973).”

바느질 솜씨는 조선시대 여성이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조선시대 사대부였던 소대현과 호연재의 딸이 청풍 김씨 집안으로 시집간 후 바느질솜씨 때문에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소대현과 사돈이 된 김약로(1694-1753)는 대제학 유의 아들로 삼형제가 모두 재상자리에 올랐는데도 관복 바느질만은 며느리가 손수하였다고 했다

(허경진, 2003).

미암일기의 저자인 유희춘의 부인인 송덕봉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의복을 수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암일기에 “부인이 냉증으로 약간 구토를 하였다. 옷 짓는 것을 감시하느라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옷을 만드는 의비(衣婢)를 두어 일손을 덜기도 하였으나 부인은 이들을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낮에 부인이 청해서 새 당상관의 길복을 입고 긴지 짧은지를 보았다.”는 기록을 보면 부인이 남편 옷을 직접 짓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인 덕봉이 남편 미암에게 얼마나 많은 옷을 지어주었는지는 1568년 한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비록 서로 떨어져 지냈어도 의복만은 철마다 꼬박꼬박 지어 주었는데, 예컨대 3월 덕봉은 미암에게 편지를 보내 명주 베 두 필을 사서 보내라고 하고, 한 달 뒤인 4월 3일에는 답호 하나와 직령 하나를 지어서 보낸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바지, 단령, 철릭을 하나씩 지어 보내고, 22일에도 바지, 버선, 철릭을 각각 하나씩 보낸다. 이에 미암은 “부인이 밖으로 집 짓는데 시달리면서 안으로는 옷을 짓기에 시달리니 그 괴로움이 심하다”라고 노고를 말하고 있다(정창권, 2003).

바느질 외에 양반 여성들은 직조도 하였다. 직조는 신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여성이 하였다. 길쌈은 양반여성의 교육서였던 여사서(女四書)에서 다음과 같이 권장되었다. “무릇 여자되오매 모름지기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배울 것이니 삼을 베고 모시를 삼되 굵고 가는 것을 갈지 않게 하며 실켜는 수레로 베짜는 일을 할 때 그 방직함에 있어서 일체 총총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라고 했다(이규순, 1983).

양반가의 남성들은 옷을 만드는 일이나 직조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의복을 구입

하고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를 관리하였다. 양반 가장이 가족의 의생활에 관여한 정도는 다음의 오희문(1539-1613) ‘쇄미록’ 일기에서 볼 수 있다.

“가족 공인(工人)이 아이들의 신을 지어 왔는데, 두 딸 아이 것은 너무 좁고 적어서 도로 주면서 다음에 만들어 보내도록 일렀다. 어머니 신과 두 손녀의 신 값도 내 주었다”, “세 아들의 귀 가림을 만들었고 두 종도 귀 가림을 얻었으니 겨울을 지내기에 근심이 없겠다.”

한편 주생활과 관련해서는 양반 여성의 역할은 문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여성들은 가정내의 일인 주생활에는 거의 관여치 않았던 것 같다. 집수리, 주거마련, 연료마련 등의 주생활과 관련된 일은 다음의 쇄미록의 기록에서 보면 남성에게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종을 시켜 울타리를 만들었다” “종을 시켜 마당 풀을 매게 하고 변소를 해일게 했다”, “빌리려 하는 집에 들어가서 가부(可否)를 보았더니 몹시 마음에 들어 살만한데 다만 우물이 멀고 뭇나무가 귀한 것이 흠이다… 타인이 빌어 살고 있으므로 태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내보내게 하고 옮겨왔다”, “집에 뭇나무와 숲이 없어서 방바닥이 차니 민망하다. 말을 빌려서 한복을 향림사 주지에게 보냈더니 즉시 탄나무 한 바리를 실어 보냈다.”

미암일기에는 가장이 새집을 짓는 등의 주택관리를 하였던 기록이 있다. 10월 28일 해남으로 내려온 미암은 승려를 시켜 집터를 보게 하고 11월 8일부터는 새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해남 현감이 보낸 일꾼 50명이 집터를 닦는 것을 감독하고 목수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정창권, 2003).

이처럼 조선시대에 의식주와 관련된 가내의 일은 흔히 여성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반조차도 남성이 적지 않게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

료의 공급과 조달, 의료의 공급과 관리, 주택 마련과 수리 연료조달을 남성이 담당하였고, 양반 여성들은 음식만들기, 바느질을 주로 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노비를 관리 감독한 것을 볼 수 있다.

2. 농사짓기와 농지관리

조선시대에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요한 노동 중의 하나가 농사짓기였다. 선비라 하더라도 벼슬에 오르지 못한 경우에는 생업 운영을 위해 농사에 종사하였다. 16세기 농업 경영방식은 지주 혹은 그 대리인이 여러 노비를 부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병작을 주어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물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었다(정창권, 2003). 노비를 부려 농사를 짓는 경우 노비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은 가장이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쇠미록 일기에 잘 나타난다.

“사람 6명을 얻고 두 계집종을 시켜 보리밭을 매었다. 사람을 사서 품값을 주고 한복, 적노와 함께 논 두둑을 만지게 했다,” “아침에 네 종과 계집종을 시켜서 둔답(屯畓)의 벼를 베어 말리게 했다,” “식사 후 산에 올라 일을 잘하는지 굽어보다가 일이 끝난 후 말을 타고 친히 가서 씨 뿌리는 것을 보고 해가 저물어 돌아왔다.”

가장은 노비나 고용자를 관리하는 일 뿐 아니라 파종할 씨앗을 조달하고 그 양을 정하며, 농사 일정을 정하고, 노동자와 소를 구하는 등 농사 전반의 일을 관리하였다. 쇠미록에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관가에서 준 종자는 반이나 부족하므로 환자(還上)를 받아서 뿌릴 작정이다”, “어제는 사람 셋을 얻었는데 아침밥만 먹이고 소를 얻지 못해서 갈지 못했고, 오늘은 소를 얻었는데 비가 내려서 또 못하고 한갓 양식만 허비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사람 셋을 얻어 가지고 도합 네 사람이 쟁기로 논을 갈았는데 겨우 6 두락을 갈고 못다 갈았으니 한스럽다. 품으로 산 두 사람은 품값으로 각각 벼 한 말씩을 주었다.”

양반 남성들은 농사짓기를 관리 감독하는 한편 농지관리도 하였다.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양반가문의 농지경영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성임, 1995)에 의하면, 유희춘은 혼인을 통한 상속, 매득, 개간, 관둔전, 모점(冒占)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확대하였다. 농지 확대는 관직을 배경으로 한 개간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저습지(低濕地), 곡지(谷地), 진황지(陳蕙地) 개발은 그 대상지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적은 재원으로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사관리는 주로 남편이 하였지만 남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인이 농사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유희춘은 자신이 소유한 유자목의 열매수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치밀한 인물이었지만 재경관료로서 일을 하고 있는 터미르로 농지에 대한 관리는 주변인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 송씨에 의해 토지소유현황 파악과 매매가 이루어졌고, 사위 윤관중에 의해 해남 등지의 추수와 그 조의 운송이 이루어졌다. 향리에서 떨어진 곳은 친인척이나 해당 지방관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졌다. 한편 농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는 수노(首奴)인 석정이 총괄하였다(이성임, 1995).

유희춘(1513-1577)의 부인인 송덕봉(1521-1578)이 농사를 관리하는 것은 미암일기에 “아침에 부인이 큰손자 광선으로 하여금 삼 베는 것을 감시하라고 했는데, 광선이 중도에 그만두어버려서 부인이 꽤 씩하게 여겼다.”는 기록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농사짓기는 남성이 주로 관리하였지만 안주인도 역시 노비

를 부러 직접 농사짓기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노비가 없는 가정에서는 양반 부녀라도 직접 밭일을 하기도 하였다. 가난한 선비들의 아내들이 밤에는 베를 짜고 낮에는 김을 땀던 것을 김삼의당의 시에서 엿볼 수 있다. “해가 내 등을 구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네, 가라지를 날날이 뽑아 긴 밭고랑을 다 마치니…(이혜순 외, 1999).”

1892년에 부농(富農) 양반 집에서 태어난 한 할머니는 그의 구술에서 어머니가 머슴을 다섯씩 데리고 농사를 지으시면 아버님은 농사지은 것을 배에 싣고 가서 팔아 가지고 놀이 돈에 다 써 버리고 들어왔다고 했다(오현주, 1985). 조선시대의 부녀는 가장이 농사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성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양반가 남성들은 농사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농사짓기는 노비가 주로 하였고, 관리의 부인을 비롯한 다른 가족원들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들은 노비가 있는 경우 이들의 농사일을 감독 관리하였지만 노비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3. 구매와 교환

조선시대에는 가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시정(市井)에서 다른 생필품으로 교환되었다. 양반가에서 여성은 내외법으로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주로 남성이 가내생산물을 노비를 통해 사고팔고 교환하여 가계운동을 위한 물자를 조달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등의 경제적 일을 수행하였다.

가장이 물품을 구입하고 교환하면서, 교환될 물품과 양, 가격까지 결정하고 시장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다음의 ‘쇄미록’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거친 포목 세필을 막정(奴)을 시켜 미역 45동과 저린 고등어 13마리를 바꾸어왔다”, “이웃에 소를 잡아 고기를 파는 자가 있다고 하므로 쌀 한 말 세 되를 주고 뒷다리 하나와 내장 조금을 사왔다”, “바다 사람이 장에 와서 굴을 판다기에 즉시 벼 2두를 주고 5사발을 바꾸었는데 거의 한 말이나 된다.”

양반가 남성들이 장보기의 물품과 양, 가격을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온 것은 노비였다. ‘쇄미록’에 “말을 팔려고 중 춘기로 하여금 끌고 대흥 장에 보냈더니 값이 싸서 팔지 못하였다”, “춘이(婢)를 보내서 포목을 가지고 흥주 시장에 가서 보리와 모시로 바꿔 오라고 했더니 값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왔다” 고 했다.

가장들은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일 외에 교환활동을 통해 가계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쇄미록(오희문, 1990)’ 일기에 “집사람이 떡을 찌서 오늘 장에 내다 팔려 했다… 술을 빚어 놓은 것을 향춘을 시켜 장에 가서 쌀로 바꾸었다 내일 양식으로 하려 한다… 장에 술을 팔려고 향춘과 정사과택 중 목개가 함께 술 여덟 병을 이고 갔는데 중도에 목개가 발을 헛디더 항아리에 가득하던 술을 깨쳐서 그대로 돌아왔으니 우습다.” 라는 기록이 있다.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가의 상행위를 연구한 이성임(1999)의 연구에 의하면 오희문은 지방과 서울, 그리고 원격지 교역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하고 또 이를 통해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원격지 교역에는 오희문 뿐 아니라 아들, 사위, 누이동생 등 그의 가족이 모두 참여하였고, 원격지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소금, 어물, 미역, 목

화, 생마 등 그 지역의 토산물이었다. 지불수단은 쌀, 면포, 꿀 등으로 주로 현물화폐가 통용되었고, 원격지 교역에는 노복인 막정, 덕노, 춘기, 개질지, 수이 등이 이용되었다.

유희춘의 미암일기에서도 남성들이 구매를 관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유희춘은 시전(市廛), 장시(場市), 포구(浦口) 등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가 사들인 물품은 곡물류, 면포, 비단류, 종이류, 기타 생활용품류로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이러한 물품들은 서울이나 향리에서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물품 값은 면포, 쌀, 보리, 콩, 미선(尾扇) 등을 통해 지불하였으며, 이중 면포와 쌀이 많이 이용되었다. 실제 구매를 담당한 사람은 유희춘가의 노비였다(이성임, 1998).

송촌 소대현(1682-1764)집안 역시 직접 상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를 자주 했다. 40년 넘게 계속된 ‘동춘당일기’에는 이 집안의 상거래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동춘당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약재였으며, 그 다음으로 집을 짓는 자재와 산역 자재였다(정창권, 2003).

남성 뿐 아니라 양반 여성들도 가내에서 남성과 더불어 사고팔기의 구매와 교환, 자본의 축적 등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희춘가의 물품구매는 대부분 가장인 유희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면포와 비단류 구매는 부인 송씨에 의해 주도되거나 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이성임, 1998).

“담양일문의 노비 노적이 부인의 편지를 가져왔다. 內紬 2필을 급히 사서 보내라 한다.”, “부인이 오승목(五升木) 25필로 치맛감 비단(裳次藍段子)을 샀다.”, “부인이 편지에 내면주(內綿紬) 3, 4필, 단목(丹木) 2편, 홍화(紅花) 수두(數斗)를 급히 사서 보내라 한다.”, “부인이 박언당을 불러 세백목면(細白木綿) 1필 11승을 주고 담비털을 사게 했다. 딸도 팔승면포

(八升綿布)를 주어 세포(細布)를 사고자 하였다.”는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양반 여성들은 내외법에 따라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박미혜(2002)의 연구에 따르면 유희춘의 부인은 때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장에 가서 부인이 직접 찢 무명과 바귀오기도 하며, 손자의 혼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송씨 형제들과의 땅을 매매하고 교환하기도 하였다.

부인 송씨는 집안의 수입 및 지출과 재산증식 등 갖가지 경제적 책임도 떠맡고 있었다. 우선 그녀는 집안에 나고 드는 물건을 관리하였는데, 당시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선물경제시대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었다(정창권, 2003). 부인은 물품의 출입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남편에게 알리고 뇌물이라 여겨지는 것들도 준 사람과 품목을 기록하여 남편에게 보고도 하였다. 부인은 유희춘이 집에 내려왔을 때 함께 그동안 가계와 재산 기록을 대조해 보는 등 다음의 기록에서처럼 가계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 “저녁에 등불 밑에서 부인과 가계를 상의했는데 부인이 담양에 있는 전답을 차근 차근 세므로 내가 부인의 사집책에다 적어보니 대충 논이 7섬 9두락지, 밭태종이 1석 18두락지이다”

양반 여성은 시장활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일도 하였다. 미암일기에 “부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서울로 오면서 짐을 싣고 왔던 말을 팔아 가지고 쌀을 사서 내놨다가 받아들이는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부인은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산해서 받기도 했으며, 고향에서는 지방관의 도움으로 적잖은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1741-1793)는 “선비의 아내는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

영할 수 있는 데 장·초·술·기름들을 판매하는 일과 대추·밤·감·귤·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 염료인 홍화·자초·단목·황울·검금·염청 등을 사서 쌓아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하였다(김병하, 1985). 양반가의 부녀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교환 구매활동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자녀 양육 및 교육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젖을 먹이고 돌보는 자녀양육은 실질적으로 유모나 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모는 양반가에서는 혼수로 준비되었는데, 세종실록에 “새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날 ... 젖어미 1명, 몸중 2명, 남중 10명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세종 9년 4월 임술일).

비자가 아이를 돌보는 상황은 ‘미암일기’에 잘 나타난다. “밤 세시에 소비(小婢) 돌금이가 딸 방의 문 밖에서 숙직하다가 잠자던 중에 잘못 마당으로 나가 떨어져 머리가 장독에 부딪쳐 깨지는 바람에 온 집안이 놀라 살펴보았다.”고 했다.

이처럼 양반가에서 신체적 돌보기는 유모나 비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자녀의 올바른 심성을 기르고 품행을 가르치는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어머니가 맡고 있었다. 우암 송시열은 ‘계녀서’(송시열, 1986)에서 기본적인 인성과 품행 교육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짐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딸자식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들자식은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하거니와 아들자식도 글을 배우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있으니, 어렸을 때부터 속이지 말고, 지나치게 때리지 말고, 글을 배울 때 차례 없이 권하지 말고, 글은 하

루에 세 번씩 권하여 읽히고, 잡된 노릇을 못하게 하고, 보는 데서 드러눕지 말게 하고, 세수를 일찍 하게하고, 벗과 언약하였다면 하면 꼭 실행하게 하고, 남과 신의를 잃지 말게 하고, 잡된 사람과 사귀지 못하게 하고, 일가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온갖 행실은 옛 사람의 좋은 일을 배우게 하고, 열다섯 살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맡겨 잘 가르치게 하고, 온갖 일을 한결같이 잘 가르치면 자연히 단정하고 어진 선비가 될 것이다. 어려서 가르치지 못하고 늦게야 가르치려 하면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일찍 가르쳐야 문호를 보존하고 내 몸 에 욕이 아니 될 것이다...(중략). 딸자식도 가르치는 도리는 같으니 대체로 남녀를 다 다부지게 가르치고, 행어나 병이 날까 염려하여 놀게 하라. 거저 편하게만 하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행동이니 부디 잘 가르치도록 하라.”

‘여사(女史)’와 ‘규감(閩鑑)’ 여성교훈서가 전해오는 송촌 소대헌(1682-1764)가의 부인 호연재(1681-1722)의 자식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그의 외손자인 김종최는 ‘사실기(事實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호연재 부인이 1남1녀를 두었는데 몹시 사랑하면서도 엄격하게 가르쳤다. 일찍이 7년 장편을 지어 아들을 훈계하였는데, 간절히 경계하는 말이었다. 딸이 겨우 다섯 살이 되자 뒷마당에서 놀지 못하게 했으며, 늘 종아리를 쳤다. 이렇게 하여 아들은 학문과 행실로 소문나고, 딸은 대가의 어진 부인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부인의 교훈한 힘이 많았다.”고 했다(허경진, 2003).

인성 및 품행 교육과 더불어 자녀의 문자 교육에도 부인이 관여하였던 것은 미암일기에서 볼 수 있다. 유희춘과 그의 부인이 손자 흥문을 직접 가르치고 훈육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문이 글공부를 게을리 하고 피해가기를 잘 하므로 부인이 화를

내어 매를 때렸더니 즉시 고쳤다.”고 했다. 미암의 부인인 덕봉은 손자의 성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책을 남편인 미암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자교육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홍문의 성격이 총명하고 말재주가 있으니 ‘양몽대훈’이나 ‘소학’과 같은 글을 읽혀야 하는데, ‘신증유합’과 같이 어렵고 깊은 문자를 읽고 있으니 마치 견고한 성곽아래서 군사의 기운만 손상시키는 격이오, 아직 늦춰주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을 읽히는 것이 낫지 않겠소?” 라고 제안하여 남편 미암이 다음날부터 부인 덕봉이 일러준 책으로 가르치니 홍문도 매우 좋아하였다고 한다(정창권, 2003).

여성이 양육자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양육자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장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은 ‘쇄미록’(오희문, 1990)에 딸이 밤 2경에 아이를 낳자 즉시 감초를 달여서 아기에게 먹였다는 것이 기록된 것과 딸이 젖이 잘 나오지 않자 태수에게 요청해 젖있는 관비(官婢)를 시켜 젖을 먹이게 한 배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목재 이문건(1494-1567)은 남성이면서도 손자 이수봉의 출생과 성장과정, 질병과 사고, 손자를 교육하는 과정과 방법 등을 ‘양아록’이라는 육아일기로 기록하고 있다(이문건, 1997). 특히 성장과정이 기록된 일기에서는 울음소리, 앉기, 첫 이 나기, 기어 다니기, 씹어 먹기, 처음 일어서기, 걸음마 연습, 말 배움, 젖니 갈기와 같은 발달과정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육아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직접 손자를 품에 안고 돌보는 일도 하였다. “이불에 파고들어 내 가슴을 만지며, 잠들 때면 내게 안기는구나, 잠에서 깨어나면 매번 할아버지를 부르고 내 가까이 오며 두려워할 줄 모

르네, 손자가 잠자는 틈에 일어나 책을 보다가 잠에서 깨면 끌어안아 주었지, 손자를 안아 눕히고 그와 더불어 잠자며 밤을 함께 지내고 항상 따로 놔두지 않았네…….마마로 고통을 당할 때, 죽을 먹이는 일 똥누이는 일을 일일이 할애비더러 해달라 졸라대네, 기쁜 마음으로 내 스스로 꺼리지 않고 돌봐주니 도리어 즐겁구나.” 이처럼 목재는 남자였지만 항상 손자를 옆에 두고 손수 돌봐주었다.

양반가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들과 딸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딸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태도로 가정교육을 한 반면, 아들에 대해서는 매로 다스리는 엄격한 태도로 문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버지로서의 딸과 아들에 대한 양육역할의 수행은 ‘쇄미록’의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위로 두 딸은… 내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왔고, 막내 숙단은 얼굴이 곱고 밝으며 성질이 몹시 단아하여 내 몹시 사랑하던 터라, 고운 마음과 눈매가 자나 깨나 눈에 보이니 시경(詩經)에 이른바 귀여운 막내딸이 실로 내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로다. 아들놈은 성질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에 지난 해 초봄에 너무 과하게 매를 때린 것을 오늘날 생각하니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

조선시대 딸 교육은 어머니가 아들 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아버지는 딸의 양육과 교육에도 적지 않게 관심을 기울였다. 딸을 품 안에서 재우기도 하였고 딸과 함께 놀이도 하고 산보를 하거나 바람을 쏘이기도 한 것을 쇄미록 일기에서 볼 수 있다.

“딸을 몹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어려서는 항상 내 이불 속에서 같이 재웠다”는 기록과 “단녀와 바둑을 두고 호도놀이를 하였다”, “식사 후 인아·단녀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뒤봉우리에 올라 손수 고사리를 꺾어 가지고 왔다”, “세 딸과 함께 뒤봉우리에 올라 눈 닿는

데까지 바라보다가 혹 산나물도 뜯으면서 바람을 쐬고 돌아왔다.”

가장은 딸에 대해서는 주로 사랑으로서 정서를 지지해준 반면, 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엄격한 훈육으로 교육하였다. 서당에서 교육받도록 하였고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하였다.

아들의 문자 교육에 대한 양반 남성들의 열의는 사대부 소대헌 집안의 교육열에서 찾아볼 수 있다(허경진, 2003). 수백 권 책을 사서 소장할 정도로 살림이 넉넉한 집안이었지만, 천자문을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손수 써서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만큼 자식 교육에 정성을 들인 것이다.

양아록에도 목재가 손자를 사대부가문을 계승할 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해 직접 글자를 가르치고, 손자가 학업을 게을리 하면 꾸짖고, 종아리를 때리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손자의 지각이 날로 발달해 시험 삼아 글자를 쓰고 읽게 하니, 혀가 짧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란하여 잘 잊어버리고 제대로 외지 못하네, 손자의 친품 중간수준은 되니, 기대하는 바는 너무도 성급하다.”, “그네를 타겠다고 조르기에 허락하였네, 오래도록 바람에 몸을 날리더니 이튿날도 오로지 그네에 몸을 매달고 있네, 전혀 책을 돌아보지 않기에 아울러 책도 읽으라 말을 전했네. 연구로 글을 지으라 했으며 그러지 않으면 그네를 끊겠다 했네, 아이는 남이 제 뜻을 거스르는 건 싫어하면서도 거슬리게 해서 안된다는 건 일찍이 깨닫지 못하네, 단칼에 그네를 끊어버렸으나, 남은 분이 풀리지 않는구나, 손자를 불러 혹독하게 꾸짖고 손들고 있으라 준엄하게 벌주었네. 회초리로 종아리를 세차게 때리니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네, 10여대를 때리고 나서 차마 더 때리지 못하고 나중에 봐가면서 더

때린다고 타일렀네…….”

조선시대의 자녀양육에는 여성만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성도 관여하였고 교육도 여성은 딸, 남성은 아들 교육에 관여하였다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노비 관리

조선시대 양반가에는 노비가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노비들은 곡식을 심고 거두어 먹을 양식을 마련해주며, 나무를 꺾어다 음식을 익혀주고, 방을 덥혀주며, 꼴을 베어다가 말을 먹여 출타를 할 때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대부의 손이요 발이었다. 그들은 기쁘거나 슬픈 소식이 있을 때 먼 곳에 거주하는 친지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고 위문도 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달려와 이야기해주는 사대부들의 눈이요, 귀이며 또한 입이었다. 사대부들은 이러한 노비가 없이는 어떠한 생활도 영위할 수 없었다(전경목, 1996).

양반의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였던 가내 노비들이 하였던 일은 노비의 이름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노비에는 농사와 가사 전반을 관리하는 수노(首奴)가 있고, 시중을 드는 안전사환노비(眼前使喚奴婢)가 있었으며, 부엌일을 담당하는 취비(炊婢), 바느질을 담당하는 침비(針婢), 빨감을 해오는 초노(樵奴)도 있었다. 그 밖에 당시 중요한 운송수단인 말을 관리하는 노비가 있었고 또한 가정직(家直婢)라 하여 집을 지키는 노비도 있었다.

노비는 주가에서 기거하는 가내노비(사환노비)도 있었고 주거를 달리하면서 공물과 지대를 주가에 내는 외거노비(납공노비)로 있었다. 가장은 외거노비(납공노비)들로부터는 신공(身貢)이나 공물을 수취하는 일을 해야 했고 가내노비(사환노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각자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야 했다. 다음의 '쇄미록' 일기에서 가장의 이러한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한노(奴)가 병을 청탁하고 일어나지 않으니 심부름 보낼 곳은 많은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집에 사환이 없으니 뭘 나무와 말먹일 풀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남에게 꾸는 것도 할 수 없어 주름을 참으니 민망스럽다”, “두 종과 말을 청양에 보내서 곡식과 나무를 실어왔다”, “말 먹일 풀을 가져오도록 종과 말을 보령에 보냈다”, “두 종을 무주의 종 인수에게 보냈다. 이는 수공(收貢)을 위한 것이다”, “막정을 신공(身貢)을 받을 일로 장흥 노비에게 보냈다”, “강 건너 종 광진, 계집종 근개 등이 쌀 1두를 가져왔다. 우리 집 밭과 논을 해 먹는 사용료로 가지고 온 것이다”,

노비를 사고파는 일도 가장의 일이었다. '쇄미록'에 “구례 현감(縣監)의 첩이 계집종 둘을 내놓았기에 필목 13필로 약속했다… 새로 산 계집종은 사환으로 쓸 작정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노비의 사후를 처리하는 일,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일 등의 관리적인 일도 가장이 하였다. “중 춘비가 죽어서 송노(宋奴)로 하여금 묶어라 하고 이튿날 새벽에 용복과 함께 갖다 물어라 했다”, “한식절이라… 일찍이 죽고 자식이 없는 공(功)이 있는 노비들의 제사도 지내주었다”, “송노가 왔기에 즉시 올라 버선과 짚신을 주어 그 근고(勤苦)한 공로에 보답했다”, “아침에 종 명복을 시켜 풀을 베어 오라 했더니 비단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순한 말을 많이 하므로 발바닥을 때렸다”라는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미암일기에도 유희춘이 노비를 관리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유희춘가는 100여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상속(相續)

이나 별급(別給), 매득(買得)을 통한 것이었다. 유희춘가의 노비 중 미암일기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노비는 노 49명, 비 27명 합해 모두 79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유희춘가의 농토를 경작하고 아울러 유희춘가의 대소사에 동원되는 사환노비였다. 사환노비 이외에 납공노비도 있었지만 이들은 유희춘의 근거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거하면서 신공(身貢)만을 바치는 노비였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할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이성임, 1995).

유희춘은 노비를 다스림에 있어 '공명구립은위병행(公明俱立 恩威並行)'의 방법으로 통제하였다. 노비들의 의복을 장만해주고, 질병이나 사고가 있으면 구휼하고, 공이 있거나 심부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을 주었지만 노비가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때로써 벌을 주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공명구립(公明俱立)과 은위병행(恩威並行)에 따른 유희춘의 노비통제의 원칙은 '정훈(庭訓)'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우인수, 2000). “함께 담소하지 않는다. 그 사물(私物)을 빼앗지 않는다. 금령(禁令)을 신명(申明)한다. 까다롭게 살피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때로 포용한다. 죄가 이미 드러났으면 태(苔), 장(杖)을 적절히 가한다. 죄를 자복(自服)하고 사실을 아뢰는 자는 감죄(減罪)한다. 근거없는 말로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자는 가죄(加罪)한다. 공이 있는 자는 재물과 의복으로 상준다. 수고함이 있는 자는 음식으로 상 준다. 탐상(濫賞) 동반(同班)이 질투하고 원망하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싸우는 자는 이치(理致)의 곡직(曲直)과 상해(傷害)의 경중(輕重)으로 헤아려 결죄(決罪)한다. 상대방을 미워하여 가장에게 무소(誣訴)하는 자는 죄준다.”

한편 소대헌가에도 30여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이 집안에서 노비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덕은가승(德恩家乘)'에 구체적으로 나온다(허

경진, 2003). “중가 윗대에 종들이 많아서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했다. 동돈공이 동춘당에 앉아서 뜰에 종들을 불러 모으면 가득 모인 뒤에 나갔는데, 이렇게 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다. 형벌로 불기를 칠 때는 널판을 써서 엮어맷는데, 관청제도를 모방했다고 한다.”

이처럼 노비관리에 책임을 지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써 벌하고, 때로는 따뜻한 배려로 보살피는 등의 노비관리를 한 것은 남성들이었지만, 부인들도 노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인이 노비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예는 17세기 대표적인 양반가인 남이웅 집안의 조씨 부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씨 부인의 남편인 남이웅이 고위 관직자로 늘 바쁘기 때문에 집안일을 부인이 전체적으로 맡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조씨 부인이 주도적으로 토지관리와 노비관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이웅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때 조씨 부인이 농사일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농사관리와 노비관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거리실 논을 집의 종 다섯과 정수 삼형제가 가래 들과 소 한 마리로 하루에 갈려고 갔다”, “집의 종 넷과 정수 형제가 달려들어 거리실 논을 갈고 가래질하고 파고 왔다.” “벗고 개 논 열서 마지기를 삶으려고 집의 종 넷과 용수가 갔으나 못 다 삶았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 조씨 부인이 각 일마다 몇 명의 종이 가서 며칠간 일을 했는지 세세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촌 소대현가의 경우에도 30여명의 노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뿐 아니라 부인 호연재도 엄히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호연재의 외손자 김종취의 기록에 의하면 “부인의 살림살이에 법도가 있어 안팎이 정숙하였다. 소대현 공이 언제나 대부인을 백씨 관사에서 모셨으므로 집이 가난했는데, 부인이 홀로 살

림을 꾸렸다. 농사를 감독하고 조세를 감당하면서 법규를 잃지 않으니, 교활한 종들이 감히 속이거나 여기지 못했다. 비용이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으니, 일가 사람들이 모두 부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事實記).”고 했다.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에도 시집가는 딸에게 노비를 부리는 도리가 부녀의 할 일이라고 훈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비도 또한 사람의 자식이니 잘 대접하라……. 부디 어여삐 여기고, 꾸짖지 말고, 때릴 일이 있어도 꾸중하며 과하게 때리지 말라, 사람의 재주는 각각이니 그 종이 못할 일은 시키지 말고……(중략) 항상 나무라지 말고, 헛되이 칭찬하지 말고, 수고하는 날이면 음식을 분간하여 주고, 종이 병에 걸리면 그 부모나 자식이나 동생이 있거든 그에게 죽 쌀을 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 종은 다른 종을 시켜서 병 구완을 하여주게 하고, 그 병 증세를 각별하게 유의하여 물어서 고쳐주고, 항상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행하면 종들은 자연 충노(忠奴)와 충비(忠婢)가 될 것이다”고 훈계되어 있다. 양반가의 노비관리는 가장과 더불어 부인도 같이 하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봉제사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제사를 받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례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효가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효를 실천하기 위해 죽은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 ‘봉제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사에는 기제(忌祭), 다례(茶禮), 시사(時祀)가 포함되었다.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다례는 정초, 한식, 단오, 추석의 명절과 조상의 생일에 지냈다. 시사는 1년에 4번 철에 따

라 지냈다. 조선의 제사 범위는 본래 ‘경국대전’에 “문무관 6품 이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하며, 서인은 단지 죽은 부모만을 제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분에 따라 제사지내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반집에서는 4대 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거나 피치 못할 환난이 있다하더라도 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다. 양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임진왜란의 전세 중에도 오희문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날달 즉, 4월 29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다. 마침 내가 이 고을 즉 장수현에 와 있으니 주인인 현감 형이 제수를 성대하게 갖추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서울의 집안일을 생각하면 왜적이 가까이 닥쳐와서 장안이 온통 눈코 뜰 새 없을 터이니 어느 겨를에 제사를 지내겠는가? (장수에서 이렇게라도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수현에도 적이 침입하려 하자 오희문은 산속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이튿날이 조모의 기일이었다. “산속에 있는데 오늘은 곧 조모의 제삿날이다. 서울을 빼앗긴 후 각자가 도망하여 숨어 있어서 제사를 올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 틀림없으니 이 비통함을 어찌 말하겠는가”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비통하게 생각하였다.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1996)에 보면 오희문이 1598년 한 해 동안 무려 28번이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월평균 2번 이상의 비율이다. 게다가 한 번의 제사를 치르는 데에도 제수 등의 준비를 수일 전부터 해야 만하기 때문에 제사가 오희문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관례에 따르면 선조의 제사를 윤행(輪行)하는 것, 즉 후손들이 남녀 차별 없이 그리고 장손, 차손 구별 없이 1년 혹은 일정 기간씩 돌려가며 받드는 것이 관례였다. 오희문이 당시의 관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여러 선조의 제사를 받든 것은 단지 그의 친족들이 제사를 받들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제사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오희문의 태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는 공통된 것이었다. 제사를 잘 받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孝’를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전경목, 1996).

송촌 소대헌 집안의 경우 제사지내는 법도인 ‘덕은가승’이 있어 이에 따라 봉제사를 올렸다. “제사는 마땅히 가례에 따라 받드시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받들어야 한다. 제전을 마련하고 제기와 제복을 갖추어야 하는데, 종자가 주거나 하여 구차하게 빌리지 말아야 한다. 주인은 날마다 새벽에 중문 밖에서 알현하고 분향재배해야 한다. 자제가 10세 이상이면 다 참알하고 주인이 없으면 장자가 모든 자제를 거느리고 행례할 것이다”, “사당 안팎의 문은 엄히 빗장을 더하고, 주인이 친히 열고 닫는 것을 점검한다. 우두머리 종은 날마다 새벽에 섬돌과 뜰을 깨끗이 쓸고, 자리를 펴고 향불을 갖추어 새벽에 알현하는 이를 기다려야 한다. 우두머리 종에게 일이 생기면 시종드는 종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다. 효성깊은 소대헌은 여든이 넘어 치매기운이 나타날 때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허경진, 2003).

양반 여성들에게도 봉제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까지 여성들은 2대 혹은 3대까지의 봉제사 의무만 담당하면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윤회로 행할 수도 있었다. 또한 친정의 제사를 여성들 자신이 담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윤희나 외손봉사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시집의 제사를 대부분 4대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봉제사는 중요한 집안의 행사였으므로 며느리들이 시집오면 가장 먼저 제삿날을 외우게 하였다. 송촌 소대현(1682-1764)의 집안에서는 여성들이 외우기 쉽도록 한글로 세계(世系)를 기록하여 주었는데, 남성은 이름과 벼슬을 쓰고, 여성은 친정아버지의 이름과 벼슬까지 썼다. 그 옆에 세상에 태어난 날과 세상 떠난 날을 조그만 글씨로 덧붙여 제삿날을 외우기 쉽게 했다(허경진, 2003).

봉제사는 가문 내의 중요한 행사로서 그 대표자는 종손이지만 실제적인 준비와 진행은 중부인 여성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규범서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봉제사가 기술되어 있다.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에 보면 “제사는 정성을 다하여 정결하게 하며 조심하는 것이 으뜸이니, 제수를 장만할 때는 걱정을 하지 말고, 종도 꾸짖지 말고, 하하 소리 내어 웃지 말고, 현어사색하여 근심하지 말고, 없는 것을 구차하게 얻지 말고, 제물에 티끌이 들어가게 하지 말고, 먼저 먹지 말고, 어린아이가 보채더라도 주지 말고, 음식을 많이 장만하면 자연히 불결하니 쓸만큼 장만하고, 다음 제사에 부족할 것 같으면 일 년 동안 제수로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다음 제사에 궂제를 아니하게 하고, 풍성하고 박힌 것이 너무 뚜렷이 다르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머리를 빗고 목욕을 하되 추운 겨울이라도 그만두지 말고, 기제사에 빗갈이 있는 옷을 입지 말고, 손톱 발톱을 잘 깎고 정결하게 하면 신명이 흠향하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그렇게 아니하면 재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봉제사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다른 어떤 사회에 비하여 가문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사회였고 그 가문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봉제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의 봉제사 역할은 일상적인 가정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이순구, 1999). 조선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의례였던 제사는 명분상 남성들에 의해 행해졌지만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은 여성들이었으므로 가문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 의해 함께 유지되고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접빈객

양반가에서 봉제사 다음으로 중요시되었던 것이 바로 접빈객이었다. 사대부들은 접빈객을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예”로 생각하였고 사대부들은 평소 ‘德’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빈객이 집에 넘치는 것은 그 집주인에게 덕이 있다는 징표로 생각하였으며, 빈객이 끊어지면 주인의 부덕한 소치로 빚어진 일로 받아들였다(전경목, 1996).

오희문의 ‘쇄미록’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였는지가 잘 나타난다. “남정지가 노친과 가족을 모시고 지나가다 들러서 다시 만나니 한편으로는 슬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다. 그로부터 피난 생활하는 어려움을 들으니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술을 사고 밥을 지어서 남공을 대접해 보냈다”.

이와 같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언제나 다과와 술 및 식사 등을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이 갈 때 그 형편을 헤아려서 노자(路資)를 보태주기도 했다.

“오세량이 와서 보았다. 지금 대흥현의 산사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걸어서 왔다. 형용이 파리하고 옷도 매우 얇아서 차마 볼 수가 없다. 하룻밤 여기에서 유숙

게 하고 이튿날 돌아갈 때 쌀 1말 5되, 감장 1사발, 옷 만들 두꺼운 종이 4장, 짚신창 1벌을 주어서 보냈다.”

조선시대 접빈객은 선물교환을 통한 증답경제(贈答經濟)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오희문의 경우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생활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빈번하게 손님이 찾아왔고, 또 오희문 자신도 종종 남의 집을 방문하곤 했다. 이때 방문객이 빈손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이고 오희문 쪽에서도 손님이 돌아갈 때 답례품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객과의 선물교환은 오희문 일가의 피난 생활을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방문객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람들은 임천과 평강 주변 지역의 지방관들이었다. 지방관들이 준 식료품을 비롯한 갖가지 물품이 오희문 일가의 경제생활을 지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미야지마 히로시, 1996).

‘미암일기’의 저자인 유희춘의 경우에도 그의 일기에 선물을 주고받은 것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십여 년의 기간에 그가 선물을 받은 것이 2,788회, 선물을 준 것이 1,053회로 기록되어 있다. 3,841회의 증답이 기록된 셈인데 평균하면 매일같이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미야지마 히로시, 1996). 이를 통해서도 조선시대 양반들의 경제생활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 즉 증답경제가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대부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덕을 베푼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님과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증답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생활의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도 있었다.

손님접대는 가문의 예와 경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으므로 여성의 도리로도 강조되었다.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에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

어 있다.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먼데 친척이 아니면 남편의 벗이나 시족의 벗일 것이니, 음식을 잘 마련하여 대접하고, 실과나 술이 있는 대로 대접하되 손님이 잘 먹지 못하게 해도 박대요, 남편이 출타하였을 때 종을 시켜 만류하지 않은 것도 박대니, 이럴 때는 일가 사람을 청하여 주인 노릇을 하게하고, 일가 사람이 없으면 마을 집에 주인을 잡아 주고 잘 대접하여 보내어라. 한번 두 번 박대하면 그 손님은 아니 오고, 또 다른 손님들도 아니올 것이다. 손님이 아니 오면 가문이 자연히 무식하고 남편과 자식이 밖에 나가서 주인 노릇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니, 부디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라. 옛 부인은 다리를 팔아서 손님을 접대하고, 짚자리를 썰어서 손님의 말을 먹였다. 요사이 부인들은 손님이 왔다고 하면 남편을 지천하고 남편이나 자식이 어디 가서 잘 먹었다고 하면 그것을 기뻐하니 부디 명심하고 경계하여 잘 대접하라.”

접빈객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담당했던 주요한 가내노동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과 술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안동지역에서 발견된 요리서인 ‘수운잡방(需雲雜方)’, ‘음식디미방’, ‘온주법(溫酒法)’ 등에는 50여 종이 넘는 각종 술의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접빈객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술들이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접빈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가풍이 평가될 정도였으므로 접빈객에서 여성의 역할을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접빈객은 가정 내의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이 공간적으로 미분화되어 있던 전근대사회에 있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적 공간 내의 공적인 회합에 대한 접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이순규, 1999). 접빈객이 공적인 생활의 연장이란 측면에서 남성이 중

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활동이었다면 사적인 공간에 머물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여성이었으므로 사실상의 양반가의 사회적 활동은 남성과 여성 공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조선시대는 남녀 간에 성별분업이 존재하였던 시대로 특징 지워진다. 내외법에 따라 여성의 생활영역은 가정이었고 남성의 활동 영역은 사회였다고 분리시켜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남자가 가졌던 가부장권에는 대표권, 가독권등 외부에 대표하는 권리가 많았고 주부는 열쇠 권으로 대표되는 의식주에 대한 실권 등 가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었다고 보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내외규범을 철저히 따랐던 양반가에서 조차도 가정에서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의식주와 관련된 일은 흔히 여성의 일이었다고 쉽게 간주되지만 식료의 공급과 조달, 의료의 공급과 관리, 주택마련과 수리 연료조달은 남성이 담당하였다. 자녀양육도 여성만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성도 관여하였고 자녀의 문자 교육은 남성만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관여하였다. 조선시대에 가내의 주요한 의례였던 제사와 접빈객은 남성들에 의해 행해졌지만 이를 위한 음식준비는 여성의 도움으로 행해졌다. 주된 가내노동이었던 농사짓기의 경우에도 주로 남편이 관리하기는 하였지만 부인도 남편을 대신하여 관리하거나 노비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물품의 교환과 구매활동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

하는 경제활동도 남성들이 주로 하였지만 부녀들도 관여하였다.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가내노동에서도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분리되어 수행된 측면이 적지 않다. 성별분업이 가사노동에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의식주 생활영위와 양육, 가정생산물의 교환 및 구매활동, 농사관리, 봉제사, 접빈객 등 대부분의 가정생활이 남성과 여성 공동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의 성별분업은 차별적인 측면에서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가정은 남성의 협력과는 유리된 여성만이 관여하는 사적인 장소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가정은 여성에 의해서 뿐 아니라 남성의 적극적 관리와 관여 속에 영위되어온 공적 생활이 연계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만을 강조해온 성차별로 이분화된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살아온 공존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여성과 남성이 가정생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관점에서 분업의 역사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새로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여성과 남성은 맞벌이 가정을 이루면서 역할 갈등에 직면해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도 가사노동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고, 일과 가정을 병행시키려는 가정친화적 정책의 수혜자도 여성과 남성 공동이 아니라 개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의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 걸쳐 생산적인 일과 노동력재생산적인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여성과 남성이 가정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일과 노동력재생산적인 일을 함께 수행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오늘날 여성과 남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공유

하는 것의 근원은 이런 의미에서 조선시대에서 그 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남녀가 모두 의·식·주생활과 양육 수행에 관여하는 보완적 역할 분담과 공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은 가정과 일을 병립시켜야 하는 남녀 간의 역할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성희(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 특성과 경제적 가치. 생활과학연구 제17권, 1-14.
- 2) 김성희(1998). 산업화 이전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97-105.
- 3) 김성희(1999). 가사노동의 변화 :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49-158.
- 4) 김성희(2000).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정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3-23.
- 5)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서울 : 신정.
- 6) 김성희, 이기영(2007).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 풍속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1-21.
- 7) 미야지마 히로시 저, 노영구 역(1996). 양반. 서울 : 도서출판 강.
- 8)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4).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대한가정학회지 42(2), 195-212.
- 9) 박미해(2002). 16세기 부권과 부권의 존재양식 : 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과 송덕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8(1), 5-36.
- 10) 박미해(2003).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 :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1, 67-98.
- 11)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번역(1991). 이조실록 : 세종실록. 서울 : 여강출판사.
- 12) 빙허각이씨, 이민수 역(1988). 규합총서. 서울 : 기린원.
- 13) 서병숙(1984). 계녀 교훈록에 나타난 여성의 규범 및 계율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2, 93-115.
- 14) 소혜황후 한씨 저, 김영한 역주(1985). 내훈. 서울 : 민우.
- 15) 송시열(1986). 우암선생 계녀서. 서울 : 정음사.
- 16) 오현주(1985). 월남 선생을 원망하라!. 샘이 깊은 물 1985. 11월호.
- 17) 오희문 저, 이민수 역(1990). 쇄미록 상·하. 서울 :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 18) 우인수(2000). 조선 후기 한 사족가의 생활양식-초려 이유태의 정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2집.
- 19) 유희춘(1993). 미암일기. 담양향토문화연구회. 인천 : 광명문화사.
- 20) 이규순 교주(1983). 여사서. 서울 : 문학세계사.
- 21) 이덕무, 김종권 역(1987). 사소절. 서울 : 명문당.
- 22) 이문건 저, 이상주 역주(1997). 양아록. 서울 : 태학사.
- 23) 이문건(1998). 목재일기 상·하.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 24) 이성임(1995). 조선중기 어느 양반가문의 농지경영과 노비사환 :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0, 115-151.
- 25) 이성임(1998). 조선중기 유희춘가의 물품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9, 83-112.
- 26) 이성임(1999). 조선 중기 오희문 가의 상행위와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8, 41-70.

- 27) 이순구(1998). 조선 후기 양반가 여성의 일상생활 일례.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서울 : 조선사회연구회.
- 28) 이순형(1989). 한국중가의 아동사회화.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 29) 이순형(1990). 중가의 중손 중부의 사회화 과정고찰 : 중손, 중부의 양육사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15호.
- 30) 이순형(2000). 한국의 명문중가.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31) 이혜순, 정하영, 성기옥, 강진옥, 이동연, 박무영, 조혜란(1999).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서울 : 태학사.
- 32)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장명옥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33) 전경목(1996).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65, 45-71.
- 34) 정창권(2003). 미암일기.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서울 : 사계절.
- 35) 조희선(1988). 조선조 검약생활의 규범과 실제. 생활과학 2호.
- 36) 조희선(1998). 전통 가족에서 여성의 생활. 생활문화연구 2, 97-109.
- 37) 지영숙(1988). 정약용의 가정교육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허경진(2003). 사대부 소대헌 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서울 : 푸른역사.
- 39) 허난설헌 외 다수(1973). 한국명저대전집. 서울 : 대양서적.
- 40) 허동화(1997). 우리규방 문화. 서울 : 현암사.

- 접수일 : 2007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6일